

장기간 투석치료 중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은 환자의 Helicobacter pylori의 감염률에 대한 단일기관 비교분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과학교실¹,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공신장실²

정철호¹ · 김은정¹ · 하두경² · 김진희² · 박무용¹ · 최수정¹ · 김진국¹ · 황승덕¹

Prevalence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on Peptic Ulcer in Dialysis Patients in One Center

Chul ho Chung¹, Eun jung Kim¹, Du kyung Ha², Jin hee Kim²
Moo yong Park¹, Soo jeong Choi¹, Jin kuk Kim¹, Seung duk Hwang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cheon
Department of Artificial Kidney² Unit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cheon

배 경: 만성신부전 환자에게서 소화성 궤양의 발생 빈도가 높다. Helicobacter pylori (이하 HP) 감염은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재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에서 HP 감염은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95%, 위궤양 환자의 60-80%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투석 환자에서는 HP 감염이 상부위장관 특히 소화성 궤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투석환자에게서 궤양과 HP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은 투석 환자 중 HP의 유병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또는 복막투석받는 환자 중 본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고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HP 진단은 CLO test나 UBT를 통해 두 검사 중에 한 가지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HP에 감염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대상은 132명이었고(남자 70명), 평균 나이는 56.5 ± 14.3 세였다. 혈액투석 환자과 복막투석 환자가 각각 100명, 32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투석 기간은 27.6 ± 45.3 개월 이었다.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은 환자 중 HP의 양성률은 43.1% (57/132)였다. 위궤양에 HP 양성률은 48.1% (38/79),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33.3% (11/33) 였으나, 두 군에게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P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에는 성별과 나이, 만성신부전의 원인질환, 투석방법등은 차이가 없었으나 HP 음성군에서 투석 유지기간이 더 길었다 (16.6 ± 34.1 vs 36.0 ± 50.8 개월, $p=0.01$). 투석 기간이 증가 할 수록 HP 양성률이 증가하였다 ($p=0.004$). 특히 6년이상 장기 투석한 환자에서는 HP 양성률이 81.3% (13/16) 였다.

결 론: 투석환자에게서 소화성 궤양 발생에 HP와의 관련성이 적으며, 투석 기간이 증가할 수록 HP 양성률이 감소하였다.

Key Words: 헬리코박터, 투석, 소화성궤양

Helicobacter pylori, Dialysis, Peptic ulcer